

롯데그룹, 인적쇄신 결단... 성과주의 입각·50대 젊은 인재

가속화된 경제 위기 인사혁신 타개
임원인사 예년 대비 한달 가량 빨라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 사장 승진

롯데그룹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50대 젊은 임원을 전진배치하고 임원 직급단계도 슬림화하는 등 과격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를 인사혁신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다.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를 비롯해 유통·식품·화학·호텔 부문 35개사 계열사의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인사는 예년 대비 약 한달 가량 앞당겨졌다.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확실해진 경영환경에 대비해 내년도 경영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혁신 가속화 하기 위한 인적쇄신

롯데는 지난 8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비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변화를 위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황각규 부회장이 용퇴하고 롯데지주 경영혁신실 임원이 전체 교체되는 등의 과격적인 인사였다.

이번 임원인사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임원 직제



롯데그룹 이영구 식품BU장 사장



롯데쇼핑 황범석 백화점사업부 부사장



롯데지주 이훈기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롯데지주 고수찬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롯데케미칼 부사장 황진구 기초소재 대표이사 내정



롯데푸드 부사장 이진성 대표이사 내정



롯데칠성전무 박윤기 대표이사 내정



롯데상사 정기호 대표이사 전무

슬림화가 특징이다. 롯데는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사로 승진 및 신입 임원 수를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임원 직급단계도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직급별 승진 연한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에 CEO로 적극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부사장 직급의 승진 연한이 폐지됨으로써, 1년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상무보A와 상무보B 2개 직급은 '상무보' 직급으로 통합했다. 신입 임원이 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는 기존 13년이 걸렸지만,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승진 가능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

◆50대 초반의 젊은 CEO 전면 배치

롯데그룹의 식품 분야를 이끌었던 식품BU장 이영호 사장이 후배들을 위해 일선에서 용퇴했다. 신입 식품BU장에

는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승진하며 보임했다.

이영구 사장은 1987년 롯데칠성음료에 입사해 롯데알미늄, 그룹 감사실 등을 거쳤다. 2009년부터 롯데칠성음료 전략부문장과 마케팅부문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롯데칠성음료 대표를, 2020년에는 음료와 주류 부문을 통합해 대표를 맡아왔다.

롯데그룹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롯데지주의 실장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실장으로 롯데건설의 고수찬 부사장이 승진 보임했다. 준법경영실장으로는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검사 출신 박은재 변호사를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했다. 롯데지주는 최근 2년 사이 6개 실 수장들을 모두 교체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에 나섰다.

이번 임원인사에서는 50대 초반의 젊

은 임원들을 대표이사로 대거 등용했다. 시장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젊은 경영자를 전진 배치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의 신입 대표이사는 50세의 박윤기 경영전략부문장이 전무로 승진, 내정됐다. 롯데네슬레 대표이사였던 강성현 전무도 50세로 롯데마트 사업부장을 맡게 됐다. 롯데푸드 대표이사에는 롯데미래전략연구소장을 역임한 51세 이진성 부사장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이사에는 LC USA 대표이사였던 52세 황진구 부사장이 승진 내정됐다.

신입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에 내정된 롯데지주 경영개선팀장 차우철 전무와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로서 보임하는 DT사업본부장 노준형 전무도 52세로,

50대 초반의 대표이사들이 대거 보임한 것이 눈에 띈다.

롯데미래전략연구소에는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 임병연 부사장이, 부산롯데호텔 대표에는 호텔롯데 국내 영업본부장 서정곤 전무가 내정됐다. LC USA 대표이사에는 손태운 전무가 내부승진 했고, LC Titan 대표이사에는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생산본부장 박현철 전무, 롯데베르살리스 대표이사에는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안전환경부문장 황대식 상무가 각각 내정됐다. 롯데네슬레 대표이사에는 롯데칠성음료 글로벌본부장 김태현 상무가 내정됐다.

롯데는 롯데제과 파키스탄 콜슨 법인의 카암 라즈프 법안장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며, 글로벌 임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합의식 연기

하루 전 수정 부당 vs 계약시기 협의 필요

〈대한항공〉

〈서울시〉

서울시 조정안 수정 요구에 연기
“계약시기 관련하여 유동적 상황”

대한항공 “일방적 요구... 무책임”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을 위한 최종 합의식이 연기되면서, 하루 전날 조정안의 문구 수정을 요구한 서울시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 권익위원회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서울시의 조정안 관련 ‘문구 수정’ 요구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익위와 서울시는 이번 최종 합의식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알려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제3자 매입 방식’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관계 기관 간에 이견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잠정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송현동을 매입해 대한항공에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합의서 문구 중 계약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서에 담기는 내용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계약 시기를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종 합의식이 연기된 것은 서울시가 조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을 최종 합의식 하루 전날(25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계약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 등이 명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대한항공과 LH, 서울시에 송부됐고, 권익위는 각 당사자의 수정의견을 반영했다. 이후 지난 23일 대한항공과 LH는 조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최종 회신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5일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교체하자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최근 송현동 부지와 맞바꿀 시유지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마포구 서부순전 면허시험장 관련 반발이 일면서 시의회

의 동의가 불투명해지자 이 같은 수정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조정문의 최종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식 연기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며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조정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향후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 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의회 통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확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서울시만 믿었다가 내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서울시가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이 대한항공 임직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중기부, 뉴딜 연계 지역혁신 기업 육성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부가 지역 발전과 산업을 이끌 유망중소기업 100곳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도별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주력산업 48개도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해 재편한다.

지역에 있는 민간, 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펀드’도 권역별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26일 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박연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심화하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

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지역주력산업 기업 기술개발, 자금·판로·인력 등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가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중심 지역주력산업 개편은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 선정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 병행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11월 27일(금)

음력 : 10월 13일

수도권 날씨

2~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24

해질녘 / 17:15